

# [제주잠녀] 85. <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56)남원읍 남원리

남만의 여름은 가고..떠나는 잠녀들

등록 : 2007년 09월 10일 (월) 10:04:09  
최종수정 : 2007년 09월 10일 (월) 10:04:09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남원포구

## [제주잠녀] 85. <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56)남원읍 남원리 남만의 여름은 가고..떠나는 잠녀들

지난 여름, '남만'의 공간으로 들쭉였던 바다가 돌아왔다.

돌아온 바다에는 아직 여름의 달뜬 흔적들이 남아있을 뿐 현실 감각이 돌아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듯 하다.

해안도로를 따라 많은 관광객이 오고간 곳이지만 하천 정비 사업 이후 비만 오면 쏟아져 내려오는 쓰레기들로 오해순 남원리 잠수회장(63)은 "꽃바다는 이제 돌을 일 수 없을 정도로 허영게 변했다"고 푸념했다.





▲ 당

허영계 가슴을 드러낸 바다를 잠녀들에게 지키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7년전부터 시작된 백화현상이 지금은 '공동 양식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동 양식장에서 1년에 30~50kg은 채취하던 오분자기 양이 재작년부터는 3~4kg까지 크게 줄었다. 전북 종패 사업도 계속 진행했지만 "비옥하지 못한 밭에서 열매만 제대로 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장명호 어촌계장(51)의 귀림했다.

장 어촌계장은 "큰 비만 왔다고 하면 5t트럭 10~20대 분량의 하천 쓰레기가 흘러내려온다"며 "이들 쓰레기들로 바다가 병들고 있는데 이를 수거하는 일까지 잠녀들의 몫으로 남겨진다"고 말했다.

잠녀들이 채취한 '자연산'전복의 인기가 시들한 것 역시 잠녀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

'자연산'프리미엄으로 높은 가격을 받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채취 과정에서 작은 상처라도 나면 오래 보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가도 싸고 생존률도 높은' 양식 전복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탓에 '힘들여 작업'성과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 △다시 희망을 바다로

그래도 바다를 버릴 수는 없다. 남원어촌계는 내년 투석 작업에 이어 다시 전복 종패를 뿌릴 계획이다.

생활폐수 문제를 해결해줄 동부하수종말처리장에 거는 기대도 크다. 장 어촌계장은 “가동 시기가 조금씩 미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만 제대로 가동된다면 생활하수로 바다가 상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바다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공동양식장’이란 명칭 역시 바뀌지길 기대했다. “양식장에서 잠녀들이 채취한 것을 왜 자연산이라고 하는냐는 항의가 종종 있다”며 “소나 말을 방목하듯이 전복·소가를 ‘바다’에서 키워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란 의미를 담은 새로운 명칭으로 잠녀들의 작업에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은데다 해풍과 파도로 붕괴 위험까지 나타나고 있는 잠녀탈의장에 대한 개·보수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안도로를 따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바다를 쉽게 버릴 수 없는 이유다.

주변에 신영영화박물관과 큰 영 등 관광지가 있는데다 차에서 내려 바다로 접근이 쉬워 올 여름 어장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북적였었다.

잠녀들 역시 풍성하지는 않지만 바다밭 일부를 주민·관광객들에게 내줬다.

공동작업장 서쪽은 잠녀들이 작업하는 대신 동쪽은 바닷잡이 어장으로 개방, 보말·성게 외에도 오분자기와 전복 '로또'도 간혹 터진다.

이런 바다를 왜 떠나냐는 질문을 감히 할 수는 없었다. 오죽하면 이 바다를 떠나야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특별취재반=김형훈 문화체육팀장, 김대생 동영상·인터넷팀장, 고미 사회팀 차장, 해녀박물관>

'발로 밟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남원을 위미2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www.haenyeo.go.kr](http://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